

아동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어머니 관련변인에 관한 연구

The Study on the Effect of the Maternal Parenting Stress on the Children Depression

우희정(Hee Jung Woo)¹⁾

최정미(Jung Mi Choi)²⁾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delineate the effect of maternal variables of the children's depression. Such variables as the mother's age, her education level and maternal parenting stress have been chosen for the analysis. The sample subject were 659 pairs of fifth/sixth grade of elementary school and first/second grade of middle school and their mothers. The data were analyzed frequency, percentage, factor analysis, Cronbach's alpha, ANOVA, Pearson's correlation, and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e major findings of the research are as follows : First, the children's depression is significantly related to mother's education level but the children's depression is not significantly related to mother's age. Second, parenting stress related to temperament, relationship and learning expectation is significantly related to children's depression. Third, the result of step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on the effects of the maternal variables to the children's depression indicates that maternal parenting stress related to temperament, relationship and mother education level are the significant contributing factor. All in all, the maternal variables account for 7% of the children's depression score.

Key Words : 우울(Depression), 양육스트레스(Parenting Stress), 기질과 관련된 스트레스(Stress related to Temperament), 관계로 인한 스트레스(Stress related to Relationship), 학습기대와 관련된 스트레스(Stress related to Learning Expectation).

I. 서론

현대사회의 산업화와 지나친 도시화, 급속한 정보화 현상은 인간으로 하여금 보다 변화있고

풍요로운 생활을 누리도록 하는데 기여한 점도 많으나, 동시에 생활 속에서 많은 불균형을 경험하게 하여 가정의 역기능과 물질만능주의로 인해 정신건강을 해치고 인간관계를 유리시키는

¹⁾ 광주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²⁾ 초당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겸임교수

Corresponding Author : Jung Mi Choi, Department of Child Welfare, Chodang University, Muan 534-701, Korea
E-mail : shuma523@hanmail.net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수반하고 있다. 가족 간에 대화가 단절되고 부부간의 화합도가 낮으며, 가족구성원들간의 응집력이 낮고 부모의 강요만이 존재하는 가정에서는 자녀의 우울 경향은 증가할 수 밖에 없다.

우울은 모든 사람들이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언제든지 경험할 가능성이 있는 심리상태로서 일시적으로 경험하는 것은 정상적이며 실패, 좌절, 실망, 상실의 결과로 나타나게 된다. 우울은 몇 시간, 며칠, 혹은 몇 주 동안 지속될 수도 있으나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그것은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며 사회적, 직업적 기능을 손상시키지는 않지만 어떤 사람들에게 우울은 생명을 위협하고 무기력하게 하는 질환이 될 수 있다(문경주, 1994). 특히 아동의 우울 증상은 비교적 최근에 임상적 연구의 관심이 되고 있는 정서적 장애 중 하나로서 아동 우울에 대한 임상적 관찰과 이에 대한 연구가 현재로서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하지만 오경자 등(1991)에 의하면, 정신과 병원을 찾는 환자 중 아동의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의 문제가 외현적인 행동 문제이기보다는 심리적이고 정서적인 내면적 문제가 더 많으며, 그 중 우울이 가장 심각한 정서장애라고 지적하였다.

아동들의 우울 증세가 심각해지면 학업문제, 교우관계 등 사회화 과정에서 부적응을 초래하고 정신과 신체의 바람직한 성장에도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친다. 조성술(1981)은 사춘기 학생의 25.3%가 우울증을 경험하고 있으며, 정주영(1986)은 우울 성향이 청소년의 비행과 정적 상관이라고 보고하였다. 또한 Cole(1989)과 조성은(1991)에 따르면 우울이 자살관념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이러한 아동기 우울은 임상 집단 뿐만 아니라 정상집단에게서도 일정한 비율로 나타난다고

보고되고 있다. Lefkowitz와 Tesiny(1980)의 정상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에서 표집된 아동의 5.24~17.4%가 우울을 나타낸다고 보고하였다. Rutter 등이 10세에서 11세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정상 아동 중 13%가 우울한 기분을 보였고, 우울한 아동을 14세에서 15세 경에 재평가한 결과 연구대상의 40%가 불행과 우울의 느낌을, 20%가 자기멸시를, 7~8%가 자살 충동이 있었음을 보고하였다(강경미, 1994). 또한 Poznanski, Kranhenbuhl, 그리고 Znull 등(1976)은 우울증으로 진단된 아동 10명을 6년 5개월 동안 추적한 결과, 그 중 어떤 아동도 정신병리를 벗어나지 못하였으며 50%는 지속적으로 우울증을 앓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처럼 아동의 우울은 아동에게 치명적인 것으로 오랫동안 알려져 왔으며, 관련문헌들은 '우울'이 가지고 있는 잠재적 위험성에 대해 많은 경고를 하고 있다. 아동의 우울은 가정 이외에 학교, 사회조직 등 다양한 곳에서 발생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지속적인 영향은 아동 자신의 가정에서 일어나리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먼저 아동 양육에 일차적 책임이 있는 어머니에 대한 연구가 보다 우선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또한 지금까지의 대다수 연구는 보호 아동이나 학대받은 아동들의 임상적 증례에 관한 것이므로 우리 사회의 일반가정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그리고 아동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변인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고 아동의 우울을 설명할 수 있는 관련변인 중 아동양육을 전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어머니 관련변인에 대한 연구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아동의 우울을 설명할 수 있는 보다 다양한 어머니 관련변인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한편, 가정은 인간이 출생하여 양육되며 가족

과 더불어 생활하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의 사회활동 기관으로, 가정 환경은 아동의 일차적이고 직접적인 환경이 된다. 인간 형성이라는 관점에서 가정 환경은 학교 환경이나 사회환경에 비하여 보다 강력한 영향력을 지니며, 인간에 대한 결속력이 어떤 환경에서 보다 강하다. 인간은 가장 가소성이 풍부한 시기를 부모와 함께 생활하고, 그들로부터 영향을 받으며 독립된 성인으로 성장해 감으로써 가정 환경은 개인의 정신 건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가정 환경의 요소로는 부모의 부부관계, 부모의 자녀 양육태도와 양육스트레스, 형제자매 관계, 가정의 분위기, 가정의 경제적 문화적 상태 등이 개인의 정신건강 형성에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Bemporad(1982)의 연구에 의하면 아동 우울은 아동이 경험하는 생활 스트레스 유형에 영향을 받는다고 한다. 우울한 아동의 부모가 자녀에게 자주 화를 내고, 벌을 주고, 자녀와 분리되어 있고, 자녀의 흠을 잡으며, 자녀를 무시한다는 연구결과나 우울한 아동이 있는 가족에 대한 관찰연구에서 우울한 아동의 부모가 지배적이고 의사결정 과정에서 통제가 강한 것으로 나타나 스트레스가 아동의 우울을 초래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또한 어머니는 아동의 기질과 행동특성, 어머니 자신의 특성으로 인해 양육과 관련된 스트레스를 경험한다. 양육스트레스는 아동의 정서·행동발달 뿐만 아니라 어머니와 자녀의 관계 형성에도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다(서소희, 1994). 그리고 어머니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장기간 지속되는 스트레스는 어머니로서의 모성경험을 부정적으로 느끼게 하고 생활전반에 영향을 미쳐 가정 분위기를 어둡게 만든다(박해미, 1994). 이러한 부정적인 양육스트레스를 경험하는 어머니들은 자녀와의 상호작용에서 더 부정

적이고 적대적일 뿐 아니라 더 많은 명령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송주미, 1992). 또한 Belsky (1984)는 스트레스 상황적 요소가 양육의 주요 결정 요소이며, 직접·간접으로 아동의 발달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했다. 아동양육에 있어 어머니가 느끼는 무력감과 스트레스는 어머니의 공격성을 증가시키며 아동에 대한 학대와 우울을 높게 할 수도 있다고 한다. 이처럼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아동의 우울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리라는 예측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아동발달단계를 포함하여 아동양육에 대한 지식이 없는 부모 등 아동의 심리적, 신체적 건강이나 행동문제 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인 부모의 교육수준(Baldwin & Revenson, 1986; Lasley & Conger, 1986)과 아동양육의 경험부족이나 미숙한 부모 등 어머니의 연령에 따라서도 아동의 우울은 영향을 받을 수 있으리라 예측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함께 아동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어머니 관련 변인들을 포괄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아동의 우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머니 관련변인들을 규명하는 일은 필요하다고 여겨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연령과 교육수준 및 양육스트레스와 같은 변인을 설정하고, 이러한 변인들이 아동의 우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밝혀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아동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어머니 관련변인이 무엇인지를 밝혀 상처를 받는 아동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데 궁극적인 목적을 두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어머니의 연령과 교육수준에 따라 아동의 우울은 어떠한 차이가 나는가?

<연구문제 2>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따라 아동의 우울은 어떠한 차이가 나는가?

<연구문제 3> 아동의 우울에 어머니의 연령, 교육수준, 양육스트레스의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II. 연구 방법

1. 연구대상자

본 조사에 앞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기초로 하여 질문지의 내용을 수정, 보완하였다. 그리고 완성된 질문지를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초등학교 5, 6학년, 중학교 1, 2학년에 재학중인 690명과 그들의 어머니에게 배부, 회수하였다. 이중 응답이 누락된 자료나 불성실하게 답한 자료를 제외한 총659부를 최종분석자료로 사용하였다. 본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2. 측정도구 및 자료분석

1) 양육스트레스

양육스트레스를 측정하는 도구는 Abidin (1990)의 Parenting Stress Index(PSI)를 변안하여 사용한 신숙재(1997)의 양육스트레스 30문항을

사용하였다. 실제로 요인들이 존재하는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요인수를 3개로 지정한 후에 주 성분 분석과 오블리민 회전법을 사용하여 요인 분석을 실시한 결과, 3개의 요인이 확인되었고 각 요인의 고유치는 요인 1이 5.12, 요인 2가 1.86, 요인 3이 1.36이었으며, 각각의 설명되는 변량은 25.58%, 9.31%, 6.79%로 나타났다. 이 3개 요인의 문항내용에 기초하여 요인 1은 '자녀의 기질과 관련된 스트레스'로, 요인 2는 '자녀와의 관계로 인한 스트레스'로, 그리고 요인 3은 '학습기대와 관련된 스트레스'라고 명명하였다. 각 요인별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자녀의 기질과 관련된 스트레스(8문항)가 .82, 자녀와의 관계로 인한 스트레스(9문항)가 .70, 그리고 학습기대와 관련된 스트레스(3문항)가 .67로 나타났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정말 그렇다'까지 5점 척도로 되어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어머니가 양육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지각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2) 우울

아동의 우울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척도로는 Faulstich 등(1986)이 아동과 청소년용으로 개발한 CES-DC(the Center for Epidemiological Studies Depression Scale for Children)와 Kovacs(1985)의 CDS(Children's Depression Scale)를 참고로 하여 전귀연(1993)이 선정한 25문항을 사용하였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 659)

변 인 구 분	N (%)	변 인 구 분	N (%)
성 별	남 아 296(44.9)	어 머 니 연 령	만 37세 이하 198(30.4)
	여 아 363(55.1)		만 38~40세 237(36.3)
학 년	초등학교 5학년 147(22.3)		만 41세 이상 217(33.3)
	초등학교 6학년 161(24.4)	어 머 니 교육수준	중학교 졸업 이하 213(32.8)
	중학교 1학년 209(31.7)		고등학교 졸업 317(48.8)
	중학교 2학년 142(21.5)		대학교 졸업 이상 120(18.5)

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거의 항상 그렇다'까지 5점 척도로 되어있으며 본 척도의 Cronbach's α는 .96으로 나타났다.

3) 자료분석

본 연구의 자료를 분석하기 위해 SPSS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빈도와 백분율, 요인분석, 신뢰도(Cronbach's α), 분산분석과 상관관계분석,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Ⅲ. 결과 및 해석

1. 어머니의 연령과 교육수준에 따른 아동의 우울

어머니의 연령과 교육수준에 따라 아동의 우울은 어떠한 차이가 있을 것인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분산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2>와 같이 나타났다. 먼저 어머니의 연령에 따라서 아동의 우울은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어머니의 교육수준에 따라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p<.001), 중학교 졸업 이하인 어머니 집단의 자녀가 고등학교 졸업 이상인 어머니 집단의 자녀보다 아동의 우울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어머니의 연령과 교육수준에 따른 아동의 우울 (N=645)

변 인 구 분	우 울		
	M	D	F
어 머 니 연 령	만 37세 이하	45.90	
	만 38~40세	49.62	2.45
	만 41세 이상	46.54	
어 머 니 교육수준	중학교 졸업 이하	51.74	A
	고등학교 졸업	45.81	B 8.22**
	대학교 졸업 이상	44.39	B

D : Duncan's ***p <.001

2.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따른 아동의 우울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따라 아동의 우울은 어떠한 차이가 있을 것인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분산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3>과 같이 나타났다. 먼저 자녀의 기질과 관련된 스트레스에 따른 아동의 우울은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01). 이는 자녀의 기질과 관련된 스트레스가 상집단이 중집단 이하보다 아동의 우울이 더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자녀와의 관계로 인한 스트레스에 따른 아동의 우울은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1). 이는 자녀와의 관계로 인한 스트레스가 상집단이 중집단 이하보다 아동의 우울이 더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학습기대와 관련된 스트레스에 따른 아동의 우울 또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p<.05), 이는 학습기대와 관련된 스트레스가 높은 집단일수록 아동의 우울이 더 높게 나타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3> 양육스트레스에 따른 아동의 우울의 차이 (N=645)

변 인 구 분	우 울		
	M	D	F
자녀의 기질과 관련된 스트레스	상	52.71 A	
	중	46.76 B	14.61***
	하	43.43 B	
자녀와의 관계로 인한 스트레스	상	50.94 A	
	중	46.65 B	5.72**
	하	45.10 B	
학습기대와 관련된 스트레스	상	50.01 A	
	중	47.23 A B	4.26*
	하	45.00 B	

D : Duncan's *p <.05 **p <.01 ***p <.001

집단분류 : 하<M-SD, M-SD≤중≤M+SD, M+SD<상

3. 아동의 우울에 대한 어머니의 연령, 교육수준 및 양육스트레스의 영향

아동의 우울에 대한 제 변인들의 영향력을 살펴보기 전에 제 변인들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4>에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본 연구에서 설정한 아동의 우울과 어머니의 연령, 교육수준 및 양육스트레스간에는 어머니의 연령을 제외하고 모두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자녀의 기질과 관련된 스트레스($r=.23, P<.001$), 자녀와의 관계로 인한 스트레스($r=.17, P<.001$), 어머니의 교육수준($r=-.15, P<.001$), 학습기대와 관련된 스트레스($r=.13, P<.001$) 순으로 아동의 우울과 관련이 있었다.

아동의 우울에 대한 제 변인들의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 어머니의 연령, 교육수준 및 양육스트레스를 독립변인으로 하여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가정의 위반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Dubin-Watson계수를 산출한 결과(1.89), 잔차 간의 자기상관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에 제시한 바대로 아동의 우울에 어머니의 교육수준과 자녀의 기질과 관련된 스트레스, 자녀와의 관계로 인한 스트레스가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구체적으로 자녀의 기질과 관련된 스트레스($\beta=.18, p<.001$), 어머니의 교육수준($\beta=-.12, p<.01$), 자녀와의 관계로 인한 스트레스($\beta=.09, p<.05$)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어머니의 자녀에 대한 자녀의 기질과 관련된 스트레스, 어머니의 교육수준, 자녀와의 관계로 인한 스트레스 순으로 아동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반면 학습기대와 관련된 스트레스와 어머니의 연령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변인들의 아동의 우울에 대한 전체적 설명력은 7%로 나타났다.

<표 4> 아동의 우울과 어머니의 연령, 교육수준, 양육스트레스와의 관계

	1	2	3	4	5
1. 어머니의 연령					
2. 어머니의 교육수준	-.07				
3. 자녀의 기질과 관련된 스트레스	-.03	-.10**			
4. 자녀와의 관계로 인한 스트레스	-.05	-.07	.44***		
5. 학습기대와 관련된 스트레스	-.05	-.17***	.43***	.42***	
6. 우울	-.01	-.15***	.23***	.17***	.13***

** $p < .01$ *** $p < .001$

<표 5> 아동의 우울에 대한 어머니의 연령, 교육수준, 양육스트레스의 영향

종속변인	독립변인	B	β	전체
우울	자녀의 기질과 관련된 스트레스	0.58	.18***	F=15.70*** R ² =.07
	어머니의 교육수준	-3.27	-.12**	
	자녀와의 관계로 인한 스트레스	0.33	.09*	

* $p < .05$ ** $p < .01$ *** $p < .001$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일반가정에서 아동의 우울에 대한 어머니의 연령 및 교육수준, 양육스트레스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으며 아동의 우울에 대한 어머니 관련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지를 살펴보고자 하는 목적으로 초등학교 5, 6학년과 중학교 1, 2학년 아동들과 그들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본 연구의 결과는 아동의 우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어머니 관련 변인을 통해 아동의 우울을 감소시킬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해줄 수 있다는데 의의를 두며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고 이에 대한 논의를 하고자 한다.

첫째, 어머니의 연령과 교육수준에 따른 아동의 우울의 차이를 알아본 결과, 어머니의 연령에 따라서 아동의 우울은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어머니의 교육수준에 따라서 아동의 우울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고등학교 졸업 이상인 경우보다 중학교 졸업 이하일 때 아동의 우울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의 교육수준이 아동의 심리적, 신체적 건강이나 행동문제 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인 것으로 나온 연구결과들(Baldwin & Revenson, 1986; Lasley & Conger, 1986)과 일치한다. 이는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아동 양육시 발달단계에 따른 아동의 특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아동을 자신의 대리자 아로 여겨 아동을 통해 자신들이 이루지 못한 것을 충족시키고자 아동들에게 지나친 기대와 요구를 하거나, 또는 자신들의 자존심을 유지코자 권위적으로 아동들에게 군림함으로써 아동의 우울을 가중시킬 수 있다(Elkind, 1984)고 볼 수 있다.

둘째,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따른 아동의 우울은 자녀의 기질과 관련된 스트레스, 자녀와의 관계로 인한 스트레스, 학습기대와 관련된 스트레스 요인 모두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어머니가 자녀를 양육할 때 경험하는 많은 스트레스로 인하여 부모역할을 잘 하기가 어려워지고 강압적인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고(신숙재, 1997) 아동의 우울에 더욱 많은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어머니가 양육으로 인하여 계속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이러한 과정이 결국은 아동의 우울, 위축행동, 과잉행동, 공격행동, 퇴행행동 및 강박행동과 같은 정서적 부적응 행동(김혜련, 1994)이나 반사회적 행동(연진영, 1992)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다고 볼 때, 양육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아동의 우울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완화시킬 수 있도록 적절한 사회적 지원과 남편이나 주위사람들의 도움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자녀의 존재는 어머니에게 보람과 만족감을 주기도 하지만, 일상생활에서 매일매일 자녀에게 관심을 갖고 요구를 해결해주면서 자녀가 잘 적응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은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어머니의 많은 노력과 댓가를 필요로 한다. 일반적으로 어머니는 자녀를 잘 키워야 된다는 부담감을 갖고 있으며 자녀가 기대에 따르지 않을 때 좌절감을 경험하기도 한다. 때로는 정보나 방법을 잘 몰라서 자녀와의 관계에서 생기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만약 이런 경우에 주변에서 어머니에게 적절하고 효과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면 어머니는 다시 힘을 얻어서 자신이 갖고 있는 내면의 자원을 잘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좋은 부부관계는 부모가 양육에서 직면하는 스트레스를 처리할 수 있도록 힘을 주는 정서적인 자원을 제공하기 때문에

(Minuchin, 1974) 남편의 부모로서의 협력이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완화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셋째, 아동의 우울에 대한 어머니의 연령, 교육수준, 양육스트레스의 상대적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아동의 우울은 자녀의 기질과 관련된 스트레스, 어머니의 교육수준, 자녀와의 관계로 인한 스트레스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변인들이 아동 우울의 7%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의 기질과 관련된 스트레스, 자녀와의 관계로 인한 스트레스는 아동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이 밝혀졌는데, 이는 대체로 양육스트레스가 높은 어머니는 어떠한 형태로든 자녀를 양육할 때 부정적인 감정을 표출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아동의 우울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본다. 아동의 우울을 설명하는데 가장 영향력이 많은 양육스트레스의 하위요인은 자녀의 기질과 관련된 스트레스가 아동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에 대해서는 자녀의 기질이 까다롭다고 인지할수록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증가하며(김기현·조복희, 2000; Mash & Johnston, 1990; Webster-Stratton, 1990), 부모나 아동의 기질적 특성이 스트레스 지각에 더욱 중요하다(고성혜, 1994; Levitt, Weber, & Clark, 1986)고 하는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자녀의 기질적인 문제로 인한 스트레스는 어머니의 양육태도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며 스트레스 수준이 높을수록 부정적인 양육태도를 더 많이 사용할 것이므로 본 연구에서도 기질과 관련된 스트레스가 아동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본다. 어머니와 자녀의 기질이 조화로울수록 어머니가 자녀에게 애정적 태도를 보인다고 한 최영희(1993)의 연구는 본 연구의 결

과와 맥을 같이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자녀와의 관계로 인한 스트레스는 자녀와의 상호작용에서 자녀가 어머니의 기대대로 잘 따르지 않아 힘이 들고, 자녀와의 사이가 가깝지 않다고 여길 때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느끼며 이것의 영향을 받아 아동의 우울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어머니의 교육수준은 높을수록 아동 양육시 발달단계에 따른 아동의 특성에 대한 이해와 아동이 타인들과 접촉하는 것을 더 많이 격려하고, 아동의 정서표현이나 사회적 지지추구 기술을 발달시키도록 훈련(Cochran & Brassard, 1979)을 한다. 그리고 교육수준이 높은 어머니들은 자녀와의 관계에서 더 융통성 있고 기술적 이므로 자녀를 양육하는데 있어 보다 적절한 의사소통을 통한 상호작용을 할 수 있고(조병은 외, 1995),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애정적 양육행동이 높게 나타난다(최정미, 1999). 교육수준이 높은 어머니들은 또한 자녀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합리적인 이유를 대면서 자녀의 행동을 통제하는 경향이 있으며(Baumrind, 1967) 자율성을 더 많이 인정해주고 협동적인 관계를 맺는다(Schaefer & Bayley, 1969). 자녀에게 학습의 동기를 부여하고 호기심을 격려하고 실제적으로 자녀를 지도하는 방법을 알고 있기 때문에(이원영, 1983) 아동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본다.

결론적으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아동의 우울에 영향력 있는 변인임이 밝혀졌다.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 변인만을 다루었으나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아버지 변인도 포함시켜 연구를 확대할 것과 아동의 우울만이 아닌 포괄적인 부적응에 관한 연구를 시행함으로써 우울로 고생하는 아동을 도와 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아동들을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먼저 어머니들의 습관적인 성향을 바꿀 수 있는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과 양육과정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에 효과적으로 대처 할 수 있도록 적절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부모를 교육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본다.

참 고 문 헌

강경미(1994). 소아기 우울증의 개관. *청소년·소아정신의학*, 5(1), 1-10.

고성혜(1994). 어머니가 지각한 양육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한국청소년연구*, 18, 21-37.

김기현·조복희(2000). 맞벌이부부의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학적 관련변인 탐색. *아동학회지*, 21(4), 35-50.

김혜련(1994). 부모의 언어적 학대와 아동의 정서적 부적응행동과의 관계, 숙명여대 석사논문.

문경주(1994). 어머니의 우울과 아동의 부적응간의 관계, 고려대 석사논문.

박해미(1994). 자녀 양육행동과 관련된 부모의 스트레스 분석,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서소희(1994). 자폐아 연령군에 따른 부모의 양육스트레스에 대한 조사연구, 대구대 석사논문.

송주미(1992). 양육스트레스 상황에서 사회적 지지가 부모의 자녀행동 지각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대 석사논문.

신숙재(1997).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사회적 지원과 부모효능감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 박사논문.

오경자·이혜련·임양화(1991). 청소년의 정서 및 행동문제 특성, *소아정신건강*, 12(3).

연진영(1992). 아동학대의 실태 및 영향,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이원영(1983). 어머니의 자녀교육관 및 양육태도와 유아발달과의 관련성 연구, 이화여대 박사논문.

전귀연(1993). 청소년이 지각한 가족응집성, 가족적응성 및 가족체계유형이 청소년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 경북대 박사논문.

장주영(1986). 청소년 우울 성향과 비행과의 관계 연구, 부산대 석사논문.

조병은 외 8인(1995). 3세대를 통해서 본 모-자녀 애착 관계와 사회적 능력 : 전생애적 접근.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3(2), 86-93.

조성술(1981). 청소년 정신 건강상의 문제점. *학생생활연구* 13, 전남대 학생생활연구소.

조성은(1991). 여고생의 우울과 자살 관념 감소를 위한 인지적 집단 상담의 효과. 전남대 석사논문.

최영희(1993). 기질과 환경간의 "조화로운 합치" 모델 검증 연구(I) : 조화로운 합치 정도와 양육태도. *한국심리학회지 : 발달*, 6, 217-226.

최정미(1999). 아동의 사회적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어머니 관련 변인의 인과모형 분석 : 어머니의 성인기 애착, 결혼적응, 애정적 양육행동을 중심으로, 전남대 박사논문.

Abidin, R. R(1990). Parenting Stress Index(PSI) : Manual Pediatric psyc.

Baldwin, C. M., & Revenson, T. A.(1986). Vulnerability to economic stress.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14, 161-175.

Baumrind, D.(1967). Childcare practice, antecedent three patterns of preschool behavior. *Genetic Psychology Monographs*, 75, 345-348.

Belsky, J.(1984). The determinants of parenting : A process model. *Child Development*, 55, 83-96.

Bemporad, J. R.(1982). Management of Childhood Depression : *Developmental considerations, psychosomatics*, 23, 272-279.

Cochran, M. M., & Brassard, J. A.(1979). Child development and personal social networks. *Child Development*, 50, 601-616.

Cole PM, & Kaslow NJ.(1988). Interactional and Cognitive Strategies for Affect Regulation, Developmental Perspectives on Childhood Depression, SB Allet (Eds). *Cognitive Process in Depression*. NY London. Guilford Press.

Elkind, D.(1984). All grown up and no place to go.

Addison-Wesley Pu.

- Koalas, M.(1981). The children's depression inventory, *Psychopharmacology Bulletin*, 21, 996-998.
- Lasley, P., & Conger, R. D.(1986). Farm crisis response : Extension and research activities in the north central region. Ames : North Central Regional Center for Rural Development, Iowa State University.
- Lefkowitz, M. M., & Tesiny, E. P.(1980). Assessment of childhood depression.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3, 647-656.
- Levitt, M. J., Weber, R. A., & Clark, M. C.(1986). Social network relationships as sources of maternal support and wellbeing. *Developmental Psychology*, 22, 310-316.
- Mash, E. J., & Johnston, C.(1990). Determinants of parenting stress : illustrations from families of hyperactive children and families of physically abused childre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19, 313-328.
- Minuchin, S.(1974). *Family and Family Therapy*. Cambridge : Harvard University Press.
- Poznanski, E.O., Kranhenbuhl, V., & Zrull, J. P.(1976). Childhood depression : A longitudinal perspective. *Journal of American Academy of Child Psychiatry*, 15, 491-501.
- Schaefer, E. S., & Bayley, N.(1969). Maternal behavior and personality development, In G. R. Medinnus (ed.), *Reading in the Psychology of Parent-Child Relations*, N.Y. : John Wiley & Sons, Inc.
- Webster-Stratton, C.(1990). Stress : A potential disrupter of parent perceptions and family interactions.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9, 302-312.

2004년 4월 30일 투고 : 2004년 6월 22일 채택